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1호 【루계 제23083호】 주제99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일대 진군전을 벌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고령의학과학원 연구사 오영, 대의건설지도국 산하단위 통일원 채정철, 락랑구역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림주영, 함경북도인민병원 파장들인 림광혁, 박광수, 랑림군인민위원회 부원 황성남, 인민봉사총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영옥, 화학건설원합기소 로동자 김세옥, 중앙출판물보급사 로동자 리은정, 대동강중전지공장 로동자 한영, 모란봉시계공장 로동자 림동 18인민반 기옥실, 락랑구역 총성 2동 83인민반 김철, 대동강구역 문수 3동 23인민반 배옥녀, 경성시 두루 2동 61인민반 김순금, 청진시 수남구역 말씀 2동 4인민반 박경국, 수남 2동

사설 모든 힘을 모내기에 총집중, 총동원하자

올해의 모내기전투가 시작되었다. 당장전 65살을 로력적성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로 하여 지금 온 나라 협동벌이 세계에 끓어번지고있다.

모내기를 제철에 외따닥 끝내어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올해 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려는것이 전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모내기는 한해농사에서 관건적의 의의 가지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다.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논벼의 정보당수확고를 높여 전반적인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모내기전투성과이자 한해농사실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올해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이다. 지난 3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거머잡아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 펼쳐나선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격려해주었다.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식량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온 나라가 흥성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 호소에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깰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모든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땅답게 변모되고 개천-태성호 물길을 비롯한 대규모의 물길이 협동벌마다에 뻗어나갔으며 주체비료 폭포가 쏟아져 전체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우리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농업생산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전체 농촌지원자들은 알곡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모내기전투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모내기전투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모내기전투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일각하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일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포함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에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

2010년 5월 5일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당의 이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자

현지도 단위들을 총공세의 앞장에

평안남도 당위원회에서

모내기전투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 펼쳐나선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격려해주었다.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식량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온 나라가 흥성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 호소에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깰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내기전투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수천정보에 과일나무를 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일생산을 늘이는데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열의에 넘쳐 펼쳐나선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격려해주었다.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식량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온 나라가 흥성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 호소에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깰어지지 않았다.》

모내기전투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기술개선을 다그치며 생활필수품생산 확대

자강도에서

자강도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공동사업과 공동수호를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공정들의 기술개진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모내기전투는 모든 일군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주도해나갈 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남흥청년화학합기공장에서 김경명 직공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세계적인 과학자

최승기선생이 받아안은 송고할 믿음과 고치한 은성

달로 변형하는 선군조선의 자량으로 우뚝 솟은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에서 만부 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주제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힘있게 파시하는 주체의 비날론!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태어나고 격동의 선군시대에 온 나라의 대장사를 안아온 비날론공업의 역사는 근 반세기를 헤아린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서사시로, 영원불멸할 력사로 수놓아진 비날론공업의 긍지높은 발전력사에는 식민지

지식인의 울분을 안고 몸부림치던 리승기 선생을 인민의 참된 과학자로 이끌어주며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에 대한 진실같은 이야기가 별처럼 새겨져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의 품에 안겨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로 성장한 리승기박사의 값높은 한생애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적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새겨져있다.

모습을 우리처럼 그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과학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에는 한계가 없음을 리승기선생은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
한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현실로 꽃피워주시고 그 모든 영광과 행복을 고스란히 리승기선생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어버이!
정녕 그 품은 리승기선생을 안아 조선의 참된 과학자로 키워준 주제과학의 요람이었고 진정한 조국이었다.
주제 56 (1967)년 6월이었다.
이 무렵 함경남도와 함흥시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함흥시대학 교원들 앞에서 《우리의 인텔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이날 지난 시기 과학자들이 주제적립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순간 리승기선생의 눈굽은 찢어질 듯이 들었다.
나라의 운명이 칠패에 오르던 리조달기에 태어나 조선사람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얼마나 피눈물나는 인생길을 걸어왔던가.
산골짜기 물결은 이국땅에서 민족적질서와 수모가 몸에 절대로 짙은 리승기선생이 비날론공업의 새 력사와 더불어 받아안은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혜를 수백수천번의 비단천에 수놓을수록 더 다짐할수 있리라.
자기의 과학연구성과가 마치 빼앗겼던 불우한 식민지과학자로부터 국가과학원 합흥분원 원장으로!
하기에 리승기선생은 민족의 우수한 과학적발명을 구현해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결세의 애국자, 주제적인 비날론공업의 창시자이며 개척자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먼 앞날 당신들의 자손들이 만약 비날론의 혜택을 물어보거든 그 어떤 과학자나 기술자의 이름을 대들것이나 바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건하시고 평도하시든 조선로동당의 력사를 말하여주시요.》
있을 때면 그를 꼭 참가시켜야 한다고 애썼으며 자주 데리고 다니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어버이수령님.
때로는 그가 발명한 새로운 농약에 대해서 까지 알아보시며 과학연구에서 투철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고 또 언제든 선생이 어려운 연구과제를 두고 모 대걸 때에는 그 방법론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자애로운 스승의 다정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리라.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승기선생의 사업성과를 보시면서 참된 점과 잘못된 점, 앞으로 고쳐야 할 방향까지 지적하시니 하신 가르치심들은 모두가 우리 나라 화공공업발전에 대한 종합강요와도 같았다.
막대한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용맹의 나래를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리승기선생은 비날론공업의 주제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비날론으로 모를 대신할수 있는 혼합방사비날론, 자연유출을 대신할수 있는 모비론, 공업용염류로 쓸수 있는 비날론강 력사를 련속 연구해냄으로써 인민생활과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리승기선생을 두고 민족적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화공공업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당에 충실한 과학자, 우리 당이 제일 아끼고 사랑 하는 과학자, 우리 나라 화공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애국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비날론이여, 위대한 당의 력사 길이 전하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몇개월 앞둔 주제 50 (1961)년 5월 6일,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력사적인 대구비날론공정 준공식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일대 경사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제과학의 위대한 승리, 비날론공업의 탄생은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는 조업테이프를 끊으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리승기선생을 주제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오늘은 리선생의 소원이 풀리는 날입니다.》
비날론의 공업화, 그 얼마나 꿈속에서도 비라고 비라고 소원이었던가.
한없이 자애롭고 불날처럼 파사로운 그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는 리승기선생의 가슴은 이 세상 모든 행복을 품고도 그리운것만 같은 회색으로 하여 새차게 설레이였다.

부강변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 한생을 강고히 바쳐갈 불타는 애국의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홍분된 마음을 안고 연구소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행사 한사람한사람이 것처럼 귀중한 때에 전선에서 싸우던 과학자출신의 명사들을 소환하여 연구소로 보내주시었다.
거두되는 그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리승기선생을 비롯한 연구진단에 창조적 열정을 부여주는 귀중한 활력소 되었다.
합성섬유에 대한 연구사업은 점차 심화되었고 그 범위는 나날이 넓어졌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긴장한 연구사업을 다그치는 그들에게는 많은 실험기구와 시약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그것을 구해온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에서 주체의 빛, 우리의 영성이 맥박치도록 절결을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리승기선생은 당과 혁명을 위한 과학자의 심장은 어떻게 고공작이 하는가에 대한 심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리승기선생이 합성고무를 연구할 때였다. 연구사업정형을 자세히 알아본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고무로 만들어내었다는 정성신은 좋으나 우리 나라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원료에서 고무원료를 얻어 내겠다고 한다거나 사람이 먹지 못할것이라고 고무를 만들었다는것은 어찌 잘못된 일이라고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원유나 감자에서 고무원료를 얻어내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정경이 적은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는 고무원료를 만들어나 감자에서 얻어내려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원료에서 얻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별개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열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열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과학자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우리 당의 65년력사는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자기의 과학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워 온 긍지높은 력사이기도 하다.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에서 주체의 빛, 우리의 영성이 맥박치도록 절결을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리승기선생은 당과 혁명을 위한 과학자의 심장은 어떻게 고공작이 하는가에 대한 심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리승기선생이 합성고무를 연구할 때였다. 연구사업정형을 자세히 알아본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고무로 만들어내었다는 정성신은 좋으나 우리 나라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원료에서 고무원료를 얻어 내겠다고 한다거나 사람이 먹지 못할것이라고 고무를 만들었다는것은 어찌 잘못된 일이라고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원유나 감자에서 고무원료를 얻어내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정경이 적은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는 고무원료를 만들어나 감자에서 얻어내려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원료에서 얻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오늘은 리선생의 소원이 풀리는 날입니다.》
비날론의 공업화, 그 얼마나 꿈속에서도 비라고 비라고 소원이었던가.
한없이 자애롭고 불날처럼 파사로운 그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는 리승기선생의 가슴은 이 세상 모든 행복을 품고도 그리운것만 같은 회색으로 하여 새차게 설레이였다.
그날 저녁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던 공강준공을 축하하는 연회에 참가하여서도 그는 줄곧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있었다.
아, 내 전쟁 그이의 품에 안기지 못하였다면 어찌 오늘의 행복을 생각할수 있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시던 영웅메달을 눈물속에 싹고 또 싹고보는 리승기선생의 눈앞에는 그의 품속에서 비날론공업의 새 력사가 펼쳐진 듯이 못할 나날들이 저를 추억의 파도에 실려 안겨졌다.
순엄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41 (1952)년 4월 어느날이었다.
모란봉직하구장에서는 그이를 모시고 과학자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처음 보게 되었던 리승기선생은 가를쳐절친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과학발전의 만년대계를 펼쳐주신 그의 비범한 예지와 송고한 인품을 완전히 매혹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연락에 나선 리승기선생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실험설비들과 기술문헌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의 외랑된 청도 보내지지 않았고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넣으시었다. 그리고 대화휴식시간에는 그를 자신의 열자리에 불러주시고 그의 건강과 합성섬유연구사업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보시면서 과학자들에게 할 일이 많다고,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깊은 인연이 맺어지는 력사의 순간을 맞이한 그의 심장은 금시 터질듯 하였다.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제적 공업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날론을 발명함에도 조선사람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함에도 바로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울려주었다.
이렇게 오전에겐 비날론이나 열화비날론 생산하러던 정경영민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한것으로 생각하고있던 리승기선생에게 자기 연구과제가 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도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연구진출을 충분히 갖추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비록 크게 떠돌아다니는 아니어도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사소한 제품에도 주의를 돌려서 연구소가까이든 그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차려주도록 하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르며 로동자는 과학자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입는문제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하실 때마다 리승기선생을 불러주시고 나라의 화공공업에 관한 협의회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애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당창건사적판에서— 본사기자 적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릉 원 광 산 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령 광산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광종주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민 일군들, 광산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광산초급당비서 리명환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9 (1970)년 5월 8일 통령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광산을 로해하시고 기업관리의 로동자들의 생활문제 등 광산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광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려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기회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통령 광산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광종주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민 일군들, 광산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광산초급당비서 리명환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9 (1970)년 5월 8일 통령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광산을 로해하시고 기업관리의 로동자들의 생활문제 등 광산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광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려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기회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통령 광산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광종주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민 일군들, 광산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광산초급당비서 리명환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9 (1970)년 5월 8일 통령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광산을 로해하시고 기업관리의 로동자들의 생활문제 등 광산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광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려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기회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통령 광산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광종주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민 일군들, 광산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광산초급당비서 리명환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9 (1970)년 5월 8일 통령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광산을 로해하시고 기업관리의 로동자들의 생활문제 등 광산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광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려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기회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위대한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자!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위훈 창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질을 보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시공에서 광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총공세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새해 정초에 이어 또 다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각격과 기쁨이 온 공사장에서 차넘치고있다. 보합의 열정이 화환산같이 분출하고있는 연세건설자들은 불도가나미양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혼합장제로부터 벨트콘베어와 자동차들이 실려 질 좋은 혼합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는 연세공사장에서 불도젤과 유압식굴착기, 로타리드릴들이 거대한 동음을 울리고있다. 그런가하면 팔사소리 그칠 줄 모르는 물길굴공사장에서는 기본물길굴의 도경굴진을 끝낸 단위들이 편이여 갱확장과 콘크리트포부공사에 진입하고있다.

지금 공사장마다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라는 진격의 함성과 함께 《더 훌륭하게! 더 완벽하게!》라는 건설자들의

희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질을 보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시공에서 광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총공세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새해 정초에 이어 또 다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각격과 기쁨이 온 공사장에서 차넘치고있다. 보합의 열정이 화환산같이 분출하고있는 연세건설자들은 불도가나미양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혼합장제로부터 벨트콘베어와 자동차들이 실려 질 좋은 혼합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는 연세공사장에서 불도젤과 유압식굴착기, 로타리드릴들이 거대한 동음을 울리고있다. 그런가하면 팔사소리 그칠 줄 모르는 물길굴공사장에서는 기본물길굴의 도경굴진을 끝낸 단위들이 편이여 갱확장과 콘크리트포부공사에 진입하고있다.

지금 공사장마다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라는 진격의 함성과 함께 《더 훌륭하게! 더 완벽하게!》라는 건설자들의

희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질을 보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시공에서 광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총공세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새해 정초에 이어 또 다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각격과 기쁨이 온 공사장에서 차넘치고있다. 보합의 열정이 화환산같이 분출하고있는 연세건설자들은 불도가나미양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혼합장제로부터 벨트콘베어와 자동차들이 실려 질 좋은 혼합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는 연세공사장에서 불도젤과 유압식굴착기, 로타리드릴들이 거대한 동음을 울리고있다. 그런가하면 팔사소리 그칠 줄 모르는 물길굴공사장에서는 기본물길굴의 도경굴진을 끝낸 단위들이 편이여 갱확장과 콘크리트포부공사에 진입하고있다.

지금 공사장마다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라는 진격의 함성과 함께 《더 훌륭하게! 더 완벽하게!》라는 건설자들의

희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질을 보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시공에서 광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총공세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새해 정초에 이어 또 다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각격과 기쁨이 온 공사장에서 차넘치고있다. 보합의 열정이 화환산같이 분출하고있는 연세건설자들은 불도가나미양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혼합장제로부터 벨트콘베어와 자동차들이 실려 질 좋은 혼합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는 연세공사장에서 불도젤과 유압식굴착기, 로타리드릴들이 거대한 동음을 울리고있다. 그런가하면 팔사소리 그칠 줄 모르는 물길굴공사장에서는 기본물길굴의 도경굴진을 끝낸 단위들이 편이여 갱확장과 콘크리트포부공사에 진입하고있다.

지금 공사장마다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라는 진격의 함성과 함께 《더 훌륭하게! 더 완벽하게!》라는 건설자들의

희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질을 보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시공에서 광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총공세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새해 정초에 이어 또 다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각격과 기쁨이 온 공사장에서 차넘치고있다. 보합의 열정이 화환산같이 분출하고있는 연세건설자들은 불도가나미양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혼합장제로부터 벨트콘베어와 자동차들이 실려 질 좋은 혼합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는 연세공사장에서 불도젤과 유압식굴착기, 로타리드릴들이 거대한 동음을 울리고있다. 그런가하면 팔사소리 그칠 줄 모르는 물길굴공사장에서는 기본물길굴의 도경굴진을 끝낸 단위들이 편이여 갱확장과 콘크리트포부공사에 진입하고있다.

지금 공사장마다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라는 진격의 함성과 함께 《더 훌륭하게! 더 완벽하게!》라는 건설자들의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

금야강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연세콘크리트기전투성이나 발전기실, 송전선건설장 등 어디에서나 발전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 것이라는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러와 나의 기대, 나의 의지를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꿋꿋이 심장의 구멍입니다.》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은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러와 나의 기대, 나의 의지를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꿋꿋이 심장의 구멍입니다.》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은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

금야강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연세콘크리트기전투성이나 발전기실, 송전선건설장 등 어디에서나 발전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 것이라는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러와 나의 기대, 나의 의지를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꿋꿋이 심장의 구멍입니다.》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은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

금야강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연세콘크리트기전투성이나 발전기실, 송전선건설장 등 어디에서나 발전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 것이라는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러와 나의 기대, 나의 의지를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꿋꿋이 심장의 구멍입니다.》

금야강발전소 건설자들은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시건설관리국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는 원산군민발전소 연세건설장이다. 우리는 지금 전투적수력발전건설사업의 건설자들이 연세건설자들의 전투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한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힘차게 내달리는 건설자들의 열기면 투쟁에 의하여 전투현장은 불도가나미양 새차게 끓어번진다. 드넓은 건설장의 곳곳에 힘

현지 보도

차게 나뭇기는 붉은 기발들, 새로운 위훈창조제로 부르는 현장방송원의 힘있는 목소리, 연세건설장을 들렀다놓는 풍전기재들의 동음...

진흙을 가득 싣고 공사장으로 줄지어 들어선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순식간에 집을 부러놓고 떠나간다. 뒤따라 불도젤들이 기운차게 오가며 방금 쏟아놓은 진흙을 퍼나간다. 진흙을 밀고나가며 골고루 퍼는 무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에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연세콘크리트기전투성이나 발전기실, 송전선건설장 등 어디에서나 발전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 것이라는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러와 나의 기대, 나의 의지를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꿋꿋이 심장의 구멍입니다.》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은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에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연세콘크리트기전투성이나 발전기실, 송전선건설장 등 어디에서나 발전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 것이라는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러와 나의 기대, 나의 의지를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꿋꿋이 심장의 구멍입니다.》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은 애국의 한마음과 고개뚫힌 열정을 바쳐가는 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공법의 요구대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특혜건설현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공사의 질보장에 힘을 넣어 성파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살비들의 리용률을 높여내며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일떠세우는 건설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작업과제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고있다. 깨끗이 세척한 자갈을 포함하여 세멘트와 모래의 혼합비율을 정확히 맞추고 휘둘러가며 철근조립작업도 알뜰히 진행하며 콘크리트기구를 다그치는 이들의 간질일본색에 의하여 다출실질집조를 보기에 탐탁하고 손색없이 일떠세우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보증과 향상

곳이 닦아내며 돌격대원들이 조용조용 나누던 이야기. 《대대장동지, 이렇게 닦아내고 중심강도작업을 하면 한 천년은 문제없겠습니까?》 《에 천년만이었습니까. 만년도 문제없습니까. 만년대에 창조물이 되어야 할이 연세에 한걸리도 건다면 그건 벌써 우리의 향심이 흐려졌다는 표현이야. ...》

그들만이 아니었다. 선군시대의 창조물에 한걸리도 잊고 이서는 안된다면서 흠도포공장을 애고있고 돌격대원들의 열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강원도련들의 전투원들, 연세에 후속 풀뿌리가 쉬이지 않음에 격정되어 새벽마다 공사장에 달려나와 살살이 굵고도 뒹구는 평양시려단의 처녀돌격대원들...

그들이 순간마다 자기앞에 세워보던 향상!

본사기자 김향란

보증과 향상

곳이 닦아내며 돌격대원들이 조용조용 나누던 이야기. 《대대장동지, 이렇게 닦아내고 중심강도작업을 하면 한 천년은 문제없겠습니까?》 《에 천년만이었습니까. 만년도 문제없습니까. 만년대에 창조물이 되어야 할이 연세에 한걸리도 건다면 그건 벌써 우리의 향심이 흐려졌다는 표현이야. ...》

그들만이 아니었다. 선군시대의 창조물에 한걸리도 잊고 이서는 안된다면서 흠도포공장을 애고있고 돌격대원들의 열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강원도련들의 전투원들, 연세에 후속 풀뿌리가 쉬이지 않음에 격정되어 새벽마다 공사장에 달려나와 살살이 굵고도 뒹구는 평양시려단의 처녀돌격대원들...

그들이 순간마다 자기앞에 세워보던 향상!

본사기자 김향란

보증과 향상

곳이 닦아내며 돌격대원들이 조용조용 나누던 이야기. 《대대장동지, 이렇게 닦아내고 중심강도작업을 하면 한 천년은 문제없겠습니까?》 《에 천년만이었습니까. 만년도 문제없습니까. 만년대에 창조물이 되어야 할이 연세에 한걸리도 건다면 그건 벌써 우리의 향심이 흐려졌다는 표현이야. ...》

그들만이 아니었다. 선군시대의 창조물에 한걸리도 잊고 이서는 안된다면서 흠도포공장을 애고있고 돌격대원들의 열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강원도련들의 전투원들, 연세에 후속 풀뿌리가 쉬이지 않음에 격정되어 새벽마다 공사장에 달려나와 살살이 굵고도 뒹구는 평양시려단의 처녀돌격대원들...

그들이 순간마다 자기앞에 세워보던 향상!

본사기자 김향란

두벌농사에서

원산군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두벌농사를 하게 될 땅에 정보당 질 좋은 거름을 지만해보다. 2배로 실어내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벌지대농장에서 거름원천이 부족한것이 제일 난문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럴만도 하였다. 지난 해 산을 깎은 농장들에서는 여러가지 거름원천들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질 좋은 거름을 무저누르고 농사를 하였다. 그러나 콩로, 대산, 반천현농장들을 비롯한 벌지대농장에서는 모자라는 거름을 해결하기 위해 열두바닥파기와 물거름생산을 비롯하여 거름생산을 많은 품을 들였으나 그다지 넉넉치 못하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 많은 거름을 뽀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관적응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객관적가능성을 바로 타산

원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원산군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두벌농사를 하게 될 땅에 정보당 질 좋은 거름을 지만해보다. 2배로 실어내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벌지대농장에서 거름원천이 부족한것이 제일 난문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럴만도 하였다. 지난 해 산을 깎은 농장들에서는 여러가지 거름원천들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질 좋은 거름을 무저누르고 농사를 하였다. 그러나 콩로, 대산, 반천현농장들을 비롯한 벌지대농장에서는 모자라는 거름을 해결하기 위해 열두바닥파기와 물거름생산을 비롯하여 거름생산을 많은 품을 들였으나 그다지 넉넉치 못하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 많은 거름을 뽀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관적응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객관적가능성을 바로 타산

원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원산군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두벌농사를 하게 될 땅에 정보당 질 좋은 거름을 지만해보다. 2배로 실어내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벌지대농장에서 거름원천이 부족한것이 제일 난문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럴만도 하였다. 지난 해 산을 깎은 농장들에서는 여러가지 거름원천들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질 좋은 거름을 무저누르고 농사를 하였다. 그러나 콩로, 대산, 반천현농장들을 비롯한 벌지대농장에서는 모자라는 거름을 해결하기 위해 열두바닥파기와 물거름생산을 비롯하여 거름생산을 많은 품을 들였으나 그다지 넉넉치 못하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 많은 거름을 뽀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관적응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객관적가능성을 바로 타산

원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원산군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두벌농사를 하게 될 땅에 정보당 질 좋은 거름을 지만해보다. 2배로 실어내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벌지대농장에서 거름원천이 부족한것이 제일 난문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럴만도 하였다. 지난 해 산을 깎은 농장들에서는 여러가지 거름원천들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질 좋은 거름을 무저누르고 농사를 하였다. 그러나 콩로, 대산, 반천현농장들을 비롯한 벌지대농장에서는 모자라는 거름을 해결하기 위해 열두바닥파기와 물거름생산을 비롯하여 거름생산을 많은 품을 들였으나 그다지 넉넉치 못하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 많은 거름을 뽀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관적응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객관적가능성을 바로 타산

영광의 땅에서 올해 첫 모내기 시작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지난 10일 절제의 위인들의 불멸의 자국이 새겨져있는 원화협동농장은 올해 첫 모내기를 하고있다. 이날 농성성과 평안남

영광의 땅에서 올해 첫 모내기 시작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지난 10일 절제의 위인들의 불멸의 자국이 새겨져있는 원화협동농장은 올해 첫 모내기를 하고있다. 이날 농성성과 평안남

영광의 땅에서 올해 첫 모내기 시작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지난 10일 절제의 위인들의 불멸의 자국이 새겨져있는 원화협동농장은 올해 첫 모내기를 하고있다. 이날 농성성과 평안남

영광의 땅에서 올해 첫 모내기 시작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지난 10일 절제의 위인들의 불멸의 자국이 새겨져있는 원화협동농장은 올해 첫 모내기를 하고있다. 이날 농성성과 평안남

심장에 불을 다는 경제선동의 힘찬 목소리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들에 달려온 전국의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창조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날에날마다 우물우물 키를 찾구는 살림집벽체를

이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흔하디 흔한, 분주히 오가는 운전기사를, 건설장의 드높은 승진인양 새 차가 나뉘는 불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고조로 들끓는 건설장의 가슴벅찬 승경을 다 담겠다고 할수 없다. 여기에 창조와 혁신의 승경을 더해주는 미더운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파라하게 퍼졌것이다. 《머뭇침은 선동공연을 한답니가?》 《아에 건설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스무날동안 경제선동을 한다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건설장의 소시공으로 소문난 남구주래건설사업소 로동자 김철동무가 으쓱해서 하는 말이였다.

한일유격대경계선동은 그대로 정신폭분술로 이어져 건설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갔다. 경제선동에서 열어나 힘을 얻으면 손에 물집이 잡히는것도 모르고 하루계획을 100%, 200%로 수행했것는가.

그런 속에 시간은 살처럼 흐르고 벽에는 높아만 간다. 혁신의 소시진하는 속보의 위기도 또한 높아만 간다. 그리고보면 한층두층 키를 찾구는 집들은 노래속에 솟는 집인생이었다.

《폭풍!》

《폭풍!》 그것은 전혀 예견치 않았던 신소였다. 군안의 수많은 대고조진동장들을 찾아다니며 경제선동의 목소리를 울리느라 언제 한번 발편잡을 잘세 없던 문덕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었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폭수라고, 배일부러 또 배일하게 선동의 나팔을 불어보라고 외우던 대장 박영수동무의 목소리가 귀전에 아직 쟁쟁한데 《폭풍》이란 또 뭤말인가.

다 깊이 통찰하시고 변이 난지 난해에도 대고조진동장들에서 북대포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하도록 하여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일간 현장 경제선동을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이들에게는 속소부터 전개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단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한 침차부터 펼쳤다. 그랬었다. 그들앞에 문화성 일군인 리봉주동무가 나타났다. 《동무부, 속소는 격조요. 예술인려판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동무들을 위한 생활보장조건이 다 갖추어져있소. 그저 건설장이 들썩하게 노래만 울려주요.》

경계선동은 계속되고있다. 건설장들을 차례로 순회하며 공연하느라 또 전동원들을 도와 함께 일하느라 선동대원들의 눈가에 어느 피로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되지 않을 수 있었다. 안타까운것은 4월 마지막날에 잡쳐서부터 건설장에 예상치 않았던 정황들이 생겼것이었다. 앞치마 덮치는 격으로 또 며칠째 비까지 그치지 않고있었다.

속속 나붙는 힘있는 글발들! 일명 속보를 통한 경제선동으로 불리우는 이 방법 또한 그력이 간단치 않다. 속보의 글발들만 보아도 절로 힘이 솟는다. 《더 높이, 더 빨리!》,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

《폭풍!》

그것은 전혀 예견치 않았던 신소였다. 군안의 수많은 대고조진동장들을 찾아다니며 경제선동의 목소리를 울리느라 언제 한번 발편잡을 잘세 없던 문덕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었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폭수라고, 배일부러 또 배일하게 선동의 나팔을 불어보라고 외우던 대장 박영수동무의 목소리가 귀전에 아직 쟁쟁한데 《폭풍》이란 또 뭤말인가.

다 깊이 통찰하시고 변이 난지 난해에도 대고조진동장들에서 북대포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하도록 하여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일간 현장 경제선동을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이들에게는 속소부터 전개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단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한 침차부터 펼쳤다. 그랬었다. 그들앞에 문화성 일군인 리봉주동무가 나타났다. 《동무부, 속소는 격조요. 예술인려판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동무들을 위한 생활보장조건이 다 갖추어져있소. 그저 건설장이 들썩하게 노래만 울려주요.》

경계선동은 계속되고있다. 건설장들을 차례로 순회하며 공연하느라 또 전동원들을 도와 함께 일하느라 선동대원들의 눈가에 어느 피로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되지 않을 수 있었다. 안타까운것은 4월 마지막날에 잡쳐서부터 건설장에 예상치 않았던 정황들이 생겼것이었다. 앞치마 덮치는 격으로 또 며칠째 비까지 그치지 않고있었다.

속속 나붙는 힘있는 글발들! 일명 속보를 통한 경제선동으로 불리우는 이 방법 또한 그력이 간단치 않다. 속보의 글발들만 보아도 절로 힘이 솟는다. 《더 높이, 더 빨리!》,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

《폭풍!》

그것은 전혀 예견치 않았던 신소였다. 군안의 수많은 대고조진동장들을 찾아다니며 경제선동의 목소리를 울리느라 언제 한번 발편잡을 잘세 없던 문덕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었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폭수라고, 배일부러 또 배일하게 선동의 나팔을 불어보라고 외우던 대장 박영수동무의 목소리가 귀전에 아직 쟁쟁한데 《폭풍》이란 또 뭤말인가.

다 깊이 통찰하시고 변이 난지 난해에도 대고조진동장들에서 북대포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하도록 하여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일간 현장 경제선동을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이들에게는 속소부터 전개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단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한 침차부터 펼쳤다. 그랬었다. 그들앞에 문화성 일군인 리봉주동무가 나타났다. 《동무부, 속소는 격조요. 예술인려판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동무들을 위한 생활보장조건이 다 갖추어져있소. 그저 건설장이 들썩하게 노래만 울려주요.》

경계선동은 계속되고있다. 건설장들을 차례로 순회하며 공연하느라 또 전동원들을 도와 함께 일하느라 선동대원들의 눈가에 어느 피로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되지 않을 수 있었다. 안타까운것은 4월 마지막날에 잡쳐서부터 건설장에 예상치 않았던 정황들이 생겼것이었다. 앞치마 덮치는 격으로 또 며칠째 비까지 그치지 않고있었다.

속속 나붙는 힘있는 글발들! 일명 속보를 통한 경제선동으로 불리우는 이 방법 또한 그력이 간단치 않다. 속보의 글발들만 보아도 절로 힘이 솟는다. 《더 높이, 더 빨리!》,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

《폭풍!》

그것은 전혀 예견치 않았던 신소였다. 군안의 수많은 대고조진동장들을 찾아다니며 경제선동의 목소리를 울리느라 언제 한번 발편잡을 잘세 없던 문덕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었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폭수라고, 배일부러 또 배일하게 선동의 나팔을 불어보라고 외우던 대장 박영수동무의 목소리가 귀전에 아직 쟁쟁한데 《폭풍》이란 또 뭤말인가.

다 깊이 통찰하시고 변이 난지 난해에도 대고조진동장들에서 북대포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하도록 하여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일간 현장 경제선동을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이들에게는 속소부터 전개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단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한 침차부터 펼쳤다. 그랬었다. 그들앞에 문화성 일군인 리봉주동무가 나타났다. 《동무부, 속소는 격조요. 예술인려판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동무들을 위한 생활보장조건이 다 갖추어져있소. 그저 건설장이 들썩하게 노래만 울려주요.》

경계선동은 계속되고있다. 건설장들을 차례로 순회하며 공연하느라 또 전동원들을 도와 함께 일하느라 선동대원들의 눈가에 어느 피로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되지 않을 수 있었다. 안타까운것은 4월 마지막날에 잡쳐서부터 건설장에 예상치 않았던 정황들이 생겼것이었다. 앞치마 덮치는 격으로 또 며칠째 비까지 그치지 않고있었다.

속속 나붙는 힘있는 글발들! 일명 속보를 통한 경제선동으로 불리우는 이 방법 또한 그력이 간단치 않다. 속보의 글발들만 보아도 절로 힘이 솟는다. 《더 높이, 더 빨리!》,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

3대 혁명전시관 리철동무

원초처럼 순결한 마음을 안고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가운데는 3대혁명전시관에서 일하는 리철동무도 있다.

그때부터 그는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화화 김정일화화 키우는 사업을 성의껏 도와나시켰다. 그는 혁명의 성지를 찾는 온 세상사람들이 그 꽃들을 보며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과 호모심을 더욱더 열렬하게 간직하게 하려는 결심을 안고 온드게, 분무기 등 필요한 설비며 자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향하곤 하였다.

몇해전 어느날 리철동무는 김일성화화 김정일화화 키우는 데 필요한 새 성장촉진제가 나왔다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백두산기슭에서 피어나는 태양의 꽃들에 대한 생각이 낫다. 효능이 좋아 어디에서나 요구하는 그 성장촉진제를 한사바며 쓰고싶어하니 나라밖의 《김일성화화김정일화화》성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던 리철동무는 자기가 그것을 마련할 결심을 안고 본신폭명과업을 수행하면서 짬내어 뛰어들었다. 그 수고가 어찌 많은 량의 성장촉진제를 받은 《김일성화화김정일화화》성원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겠나.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각과 정신도덕적품조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보다도 대비할수 없이 고양한 인민입니다.》

그런 속에 시간은 살처럼 흐르고 벽에는 높아만 간다. 혁신의 소시진하는 속보의 위기도 또한 높아만 간다. 그리고보면 한층두층 키를 찾구는 집들은 노래속에 솟는 집인생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화화 김정일화화 키우는 사업을 성의껏 도와나시켰다. 그는 혁명의 성지를 찾는 온 세상사람들이 그 꽃들을 보며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과 호모심을 더욱더 열렬하게 간직하게 하려는 결심을 안고 온드게, 분무기 등 필요한 설비며 자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향하곤 하였다.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각과 정신도덕적품조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보다도 대비할수 없이 고양한 인민입니다.》

그런 속에 시간은 살처럼 흐르고 벽에는 높아만 간다. 혁신의 소시진하는 속보의 위기도 또한 높아만 간다. 그리고보면 한층두층 키를 찾구는 집들은 노래속에 솟는 집인생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화화 김정일화화 키우는 사업을 성의껏 도와나시켰다. 그는 혁명의 성지를 찾는 온 세상사람들이 그 꽃들을 보며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과 호모심을 더욱더 열렬하게 간직하게 하려는 결심을 안고 온드게, 분무기 등 필요한 설비며 자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향하곤 하였다.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각과 정신도덕적품조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보다도 대비할수 없이 고양한 인민입니다.》

그런 속에 시간은 살처럼 흐르고 벽에는 높아만 간다. 혁신의 소시진하는 속보의 위기도 또한 높아만 간다. 그리고보면 한층두층 키를 찾구는 집들은 노래속에 솟는 집인생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화화 김정일화화 키우는 사업을 성의껏 도와나시켰다. 그는 혁명의 성지를 찾는 온 세상사람들이 그 꽃들을 보며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과 호모심을 더욱더 열렬하게 간직하게 하려는 결심을 안고 온드게, 분무기 등 필요한 설비며 자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향하곤 하였다.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각과 정신도덕적품조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보다도 대비할수 없이 고양한 인민입니다.》

그런 속에 시간은 살처럼 흐르고 벽에는 높아만 간다. 혁신의 소시진하는 속보의 위기도 또한 높아만 간다. 그리고보면 한층두층 키를 찾구는 집들은 노래속에 솟는 집인생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백두산밀영에서 김일성화화 김정일화화 키우는 사업을 성의껏 도와나시켰다. 그는 혁명의 성지를 찾는 온 세상사람들이 그 꽃들을 보며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과 호모심을 더욱더 열렬하게 간직하게 하려는 결심을 안고 온드게, 분무기 등 필요한 설비며 자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향하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9일 기따라 마모루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후꾸오까현 일조우호협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어 만민의 높은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

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땀이 그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개막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개막식이 4월 29일 로씨야 자바이칼변장치에서 진행되었다.

전람회장전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화 모셔져있으며 우리 나라 기발과 로씨야기발이 드러워져있

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일본 후꾸오까현 일조우호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기따라 마모루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후꾸오까현 일

조우호협회대표단이 1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성소년궁전, 창왕유지원, 관문점을 참관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리철자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

교육조건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명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의 방침에 접하였을 때 지배인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명천군 일군들은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일군들의 협의에서는 당당한 명천중학교의 외국어시청각실구리가 중요한 안건으로 토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공작에서는 종업원들을 불러인양 생산은 생산대로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내부배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외국어시청각실을 교육실용적 가치가 있게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디.》 최근 명천군의 교육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영유아보육학교 교장 김형도 동무는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군안에 차넘치는 교육지원의 사회적분위기며 떠나생각할수 없습니다.》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주인된 심정으로

김형권 군에서

김형권군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잘하고있다. 사회에서는 일군들을 불러일으켜 교육부문을 도와주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학교 지원사업에 자각적으로 나서게 하고있다.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김형권군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잘하고있다. 사회에서는 일군들을 불러일으켜 교육부문을 도와주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학교 지원사업에 자각적으로 나서게 하고있다.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후대들을 위한 마음

정주시 일해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대 혁명가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있으며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일해협동농장은 최근년간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잘 하는것으로 하여 소문을 내고있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는 농장일군들의 뜨거운 애국의 열정이 깃들어있다.

농장원들은 자각과 헌신체를 위해 40여리 먼곳으로 앞세워 메고나선 엄명철, 김병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뒤를 따라 공사아는 많은 자재를 기한전에 마련해놓았다.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이들이 아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양정중학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수입이 내내우 교육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준 관리위원회 태하동무부, 생산계획부 수행하고 하여도 빼군하였다. 하지만 학교들에 외국어시청각실을 꾸릴때 대한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선동대원들 위문으로 불려온 선동대원들이 당원들께 선물을 건넨다.

천출명장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무적의 강군

여러 나라에서 행사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중국, 에리트, 인도네시아에서 토론회, 영화 감상회 4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중국 중앙정당 중앙위원회, 에리트주제사상연구위원회, 인도네시아 라비프라 바호페라 브라파마피사 부사장은 영화를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을 당할 자 세상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파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조선인민군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있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을 기념하여 조선인민과 함께 뜻깊게 경축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에리트주제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을 친선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뜻깊게 경축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투쟁강화에 선취적인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강군

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오늘 강력한 불패의 혁명 무력으로 자라났다.

인도네시아 라비프라 바호페라 브라파마피사 부사장은 영화를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을 당할 자 세상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파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조선인민군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있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을 기념하여 조선인민과 함께 뜻깊게 경축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투쟁강화에 선취적인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오늘 강력한 불패의 혁명 무력으로 자라났다.

당시 미국은 즉시에 《보복》을 선언하였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공갈에 겁을 먹은것은 지 일부 나라들은 조선에 배와 선원들을 조종해 돌려보냈을 《견유》해나서가지 하였다. 누가 보아도 조선에는 다른 출로가 없어보였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확관같은 선언이 울려나왔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추호의 동요없이 침략자들이 넘쳐나던 절처히 소량해 버릴 지를 피력하며 단단의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결국 굶어든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 4월 21일부는 김정일장군 주석단앞을 지나는 조선인민군 열병대오사진과 함께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신문 《오브저버》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수형질사용정신이 짝 들어차고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던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당해도 깃부서버리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이 해방되게 되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과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위적군사론을 확고히 틀어쥐고 조선인민군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지난날 세계 90년대 나라이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군력강화에 큰 힘을 쏟으시였으며 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주적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도 선봉부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

오늘 세상사람들은 한평생 인민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로고와 헌신에 대해 잊지 못하며 그이를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스며있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이다.》(조선통일지지 꾸비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조선민족의 진정한 어머니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시다.》(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이민위권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간주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에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나라로 되었다.》

태양의 해택이 온 우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조선인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무한대한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인류에게 광명을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는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였다.》(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인 수령인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조선이 자기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린 역사적사건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인민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 인민자주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한평생이다.》(라오스조선석회사 부지배인)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장군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정일장군의 혁명행위를 높이켜볼수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기울이신 주석의 로고가 되게된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일장군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로코니아근로자협회 위원장)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정일장군에 의하여 조선은 국호도, 군대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불리우게 되었다.》

수도 평양의 인민대학습당과 인민문화궁전을 비롯하여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창조물들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선땅 그 어디에나 깃들여있다. 조선의 그 어디를 가나 주석의 사적이 있으며 그의 사랑은 물과기가 받아안은 수레를, 주석을 모시고 짊어짐사건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걸으신 길은 그 희수를 헤아릴수 없다. 그 과정에는 주석의 생신날도 있었고 명절날, 휴식일도 있었다.

《조선의 부강번영, 인민자주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한평생이다.》(라오스조선석회사 부지배인)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조선인민의 총칭인 아들로

신문이 특집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라오스신문 《풍람바싸손라오》 4월 23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군 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1932년 4월 25일 김정일장군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오늘 김정일국방위원회에 의하여

우리 나라 외무성 배방록을 지지

방글라데시민주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하싸늘라오 이누가 우리 나라 외무성 비방록을 지지하여 4월 2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것이다. 2005년 6차회담에서 채택발표된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

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에 대한 그 어떤 침략과 공격도 억제, 격퇴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조

신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망과 핵물질을 안전관리노선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고 간주한다. 현정세하에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여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갈것을 호소한다.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담화 발표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트르스테인 영겐손이 4월 2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지난 78년간은 회세의 명장들을

모시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 새겨온 력사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에서는 무장투쟁을 주류로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나이제리아 대통령 취임 나이제리아에서 골라프 에벨레 조나나니 새 대통령으로 취임 하였다. 6일 아부자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호소 케니아수상 라일라 오딩가가 4월 30일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지역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동아프리카지역에서 날로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려면 지역나라들이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 수리아외무장 알리드 알 무알리미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주장관이 수리아가 메바논에국력향조직인 히즈볼라에 《스쿠드》미사일을 넘겨주었다고 보도한것을 비난하며 미국이 이 스라엘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와 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수